

“김도영, 소문대로…WBC에선 하던 대로”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이래서 김도영”이라면서 웃은 고영민 코치가 ‘부상 관리’를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작전·주루 코치를 맡은 고영민 코치는 일본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를 통해 김도영과 처음 호흡을 맞추고 있다.

부상에서 회복해 새 시즌을 위해 달리고 있는 김도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고영민 코치의 반응은 “이래서 김도영 이야기를 하는구나”이다.

고영민 코치는 “시합할 때 상대팀으로만 보고 그래서 김도영, 김도영 하나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었다. 스피드도 있고 운동에 대한 순발력이 진짜 좋다는 걸 느꼈다. 사실 이렇게 스피드도 있고 야구를 잘하는지 몰랐다”고 김도영을 이야기했다.

김도영이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만큼 부상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기대감도 든다.

고영민 코치는 “코치도 조절하겠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은 각자 선수가 스스로 해야 한다. 몸관리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부상 공백에도 최근 발표된 WBC 대표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미 검증된 선수인 만큼 대표팀은 김도영을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았다.

고영민 코치도 WBC의 추억이 있다.

‘이억수’로 불릴 정도의 넓은 수비 범위와 주루 센스를 자랑했던 그는 WBC에서는 ‘홀런타저’로 불리기도 했다. 고영민 코치는 2009년 열린 제2회 WBC 멕시코전에서 한 방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잘 먹고 잘 쉬고 몸관리 잘하고 있다가 나도 모

KIA 고영민 코치, 기대감 속 조연 부상 회복 후 몸 관리 철저히 해 시즌·WBC·아게임 준비 신경써야

르게 쳤는데 홈런이 됐다. 조구에 스트라이크 들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쳤다”고 당시 홈런 순간을 떠올린 ‘대표팀 선배’ 고영민 코치는 김도영에게 ‘하던 대로’를 강조했다.

고영민 코치는 “위낙 잘하는 선수고, 상대팀에서 견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상대 입장에서는 도영이가 못해야 한국을 잡을 수 있다”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 없이 건강하게 잘하다가 좋은 성과 내서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겠다. 갔다 오면 시즌 긴장감이 없을까 봐 걱정된다”고 웃으며 김도영의 활약을 기대했다.

KIA의 코치 입장에서 김도영을 중심으로 한 시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상’이 결국은 키워드다.

고영민 코치는 “(대회에 맞춰) 몸 빨리 만들어져야 하고, 100% 몸을 만들어서 갔다 오고 난 뒤 144 경기를 또 소화하려면 힘들다. 그런 걸 잘 이겨내야 한다. 운동 선수는 몸이 건강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잘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건강하면서 잘해야지 자기 값어치가 올라간다”며 “어린 나이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을 빨리 떨치고, 아팠던 것 빨리 적응하고 터득해서 부상 전에 자기가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부상관리를 바탕으로 한 ‘준비’는 김도영은 물론 KIA 모든 선수에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올 시즌에는 WBC에 이어 오는 9월 아시안게임도 열린다. 리그 중단 없이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 만큼 대표팀 선수들이 빠지는 이 기간은 신예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고영민 코치는 “누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다음 선수가 잘할 수 있게 여기 있는 선수들도 항상 준비



KIA 타이거즈의 고영민 작전·주루 코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일본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주루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잘해야 한다. 그래야지 팀이 강해진다. 아시안게임에서 다른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해야 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주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고 말했다.

유난히 KIA 야수진의 격차가 큰 만큼 철저한 준

비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영민 코치는 “(아시안게임 기간 같은) 동기 부여를 선수들이 잘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지만 고참 형들이 많고, 1.5군 선수들이 선배들과의 실력 차이가 난다. 밑에 애들이 올라오질 않으니깐 형들이 계

속 하는 것이다. 또 선배들이 오히려 몸관리 더 잘한다”며 “여기는 승부의 세계니까 잘하는 선수를 쓸 수밖에 없다. 몸관리 더 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전남 유도 국제 합동훈련

14일까지 순천시 日·몽골

전남 유도가 일본·몽골 선수단과 대규모 국제 합동훈련을 통해 전력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전남 유도는 순천 팔마트레이닝센터에서 지난 1일부터 제107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선수와 지도자 25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일본 오사카 지역 대학·실업팀 선수단 21명과 몽골 오르훈주 고교·대학팀 선수 12명을 비롯해 국내 실업팀과 고교·대학선수들도 대거 참가했다.

전남에서는 이광희(여수시청), 신재원·이운선(순천시청) 등이 합동훈련에 나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훈련은 종목별 맞춤 프로그램과 실전 연습으로 구성됐으며, 지도자 간 코칭 노하우와 훈련 기법을 공유하는 시간도 병행되고 있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경기력 강화는 물론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의 좋은 사례이다. 해외 우수선수단과의 교류 훈련을 확대해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김시우 PGA WM 피닉스오픈 3위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오픈(총상금 960만달러)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시우는 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코스(파71·72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로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9를 기록한 김시우는 남자 골프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등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김시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6위, 지난주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준우승에 이어 최근 3개 대회 연속 ‘톱10’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상금 43만9680달러를 받은 김시우는 이번 시즌 4개 대회 상금 170만 8755달러(약 25억원)를 벌여 시즌 상금 20억원을 넘겼다. /연합뉴스

스노보드 만형 ‘깜짝 銀’…2000년생도 일낸다

김상겸 활약에 고무된 분위기 속 단일대회 ‘멀티 메달’ 사냥 나서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정대운 하프파이프 최가은·이채운 기대

8년 만에 동계 올림픽 두 번째 메달을 수확한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한 대회 ‘멀티 메달’을 노린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 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대륙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하이원)이 ‘깜짝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을 품에 안았다.

2018년 평창에서 이상호(넥센원가드)가 이 종목 은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출전 58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상대에 선 뒤 8년 만에 나온 메달이었다.

평행대회전 메달 후보로 꼽힌 이상호가 16강에서 탈락했으나 ‘만형’ 김상겸이 일을 내면서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 이후 일정을 이어가게 됐다.

내친김에 최초로 단일 대회에서 2개 이상의 메달까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두 개의 메달은 평행대회전이 책임졌지만, 이번 대회에선 다양한 종목에서 2000년대생 선수들이 메달 도전에 나선다.

11일 예선이 열리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가 대표적이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회전과 점프 등 공중 연기를 심판들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손 화이트, 클로이 김(이상 미국)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경쟁해 온 종목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최가은(세화여고)과 이채운(경희대)이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올림픽에서도 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최가은은 이번 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3승을 거두며 여자 하프파이프 1위를 달리고 있어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 종목 최고의 스타 클로이 김의 아성에 ‘신성’



최가은이 도전하는 양상이다.

이채운은 최근 부상 등의 여파로 부침을 겪긴 했으나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 기록으로 남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획득하고 지난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선 슬로프스타일 종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저력을 보였다.

스노보드가 아니라 스키를 신고하는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도 한국이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승훈(한국체대)이 월드컵 레벨에서 경쟁하고 있다.

10일부터 예선에 들어가는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도 유망 종목이다.

모굴은 스키를 타고 1m 남짓한 높이의 눈 둔덕(모굴)으로 뒤덮인 코스를 빠르게 내려온 뒤 점프대에서 날아올라 공중회전도 펼치는 경기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에서 입상 경력

을 쌓은 정대운(서울시스키협회)이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최초로 올림픽 시상대를 정조준한다.

이번 대회엔 2명이 동시에 나란히 경기하는 듀얼 모굴도 도입돼 정대운은 15일 열린 예정인 듀얼 모굴까지 ‘2관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대륙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 시상식에서 김상겸이 은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가은(세화여고)이 18일(한국시간)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2025-20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2.5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